

왜 칭찬만을 기대하는가

보시를 할 때는 이름을 날리거나 칭찬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. 혹 남의 이목을 염두에 둔 허식이라면,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.

- 無住相布施 :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베풀되, 그 베풀 것에 집착하지 않는 ‘보시바라밀’을 완성해야 한다.
- 財布施 : 금전, 물건, 음식과 같이 물질로 보이는 형태가 있는 보시
- 法布施 : 진리보시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보시
- 無畏布施 : 상대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보시이다.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보시이다. 늘 같은 자세로 상대에게 행복감을 주고,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.